

의안검토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8. 24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남아공 이테크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
3. 안 건 요 지 : 따 로 붙 임
4. 검 토 의 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9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장 예 순

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
2007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- 다변화 국제사회에서 우리시 아·중동지역 진출의 취약성을 보완, 아프리카 지역 진출의 거점 확보가 절실함.
- 이테퀴니(eThekweni)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중 인구는 두 번째로 많으며 경제 총생산의 8% 담당하는 주요도시로 광대한 항포구와 해안이 위치해 있어, 제조, 관광, 교통, 금융 및 공공분야의 다양한 경제 구성을 바탕으로 수출관련 교역이 매우 활발함.
- 정책적으로 IT, BT, 전자통신 및 영화산업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이테퀴니시와의 첨단기술분야 교류협력, WTA회원 영입을 통한 과학기술지원과 UNESCO-WTA공동협력사업 전개 및 아프리카지역 해외 시장 거점 확보를 위하여 양 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그동안 교류 상황
 - '07. 1.19 : 남아공 이테퀴니시장의 남아프리카 태권도협회장(권택일)에게 우리시와의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서신 발송
 - '07. 3.21 : 더반시장의 자매결연 제의 서한 접수
⇒ 금년중 자매결연 공식화 절차 합의 요청

- '07. 5.12 : WTA 사무총장(오덕성) 이테퀴니시 방문, 시장 면담
- '07. 5.22 : 대전-이테퀴니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계획 제166회
임사회 보고
- '07. 6. 9 : 이테퀴니시 축제시 초청 및 UCLG(세계지방자치단체
협회) 제주회의 참가 후 대전방문 희망 서한접수
- '07. 6.18 : 호주 APCS 참가시 MOU체결 관련 상호방문 서한접수
※ 우리시 회신('07. 6. 29)

○ 향후 추진계획

- '07. 9. 5~19 : 제169회 임사회 회의시 자매결연체결 승인 신청
- '07. 9.26~29 : '07 IAC 인도 하이데라바드 회의참가(9. 24~25)
후 이테퀴니시 방문('07. 9월말, 더반축제) MOU
체결예정
- '07. 11. 1~2 : 이테퀴니시장 제주 UCLG참가 ('07. 10. 28 ~ 10. 31)
후 대전방문 자매결연체결 예정

3.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남아공 이테퀴니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
위하여 「대전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조례」 제5조에
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사항임.
-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에 위치한 나라로 우리나라
와는 1992년에 수교하여 이중과세 방지협정, 항공협정, 투자보장
협정, 남아공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,
년간 약 25억불의 아프리카 최대 교역규모를 갖고 있으며,

- 이테퀴니시는 남아공의 관문역할을 하는 항구도시로서, 제조, 관광, 교통, 금융 등 산업이 발달하여 남아공 GDP의 8%를 담당하고 있으며, BT, IT, 통신, 전자, 환경기술 개발과 영화산업의 집중 육성과 특히 2010년 월드컵 준결승 개최예정지로 잘 알려져 있음
- 우리 시와는 금년 1월에 이테퀴니시장으로부터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서신을 접수하고, 지난 5월 제166회 임시회에서 대전-이테퀴니시간 교류협력의향서 교환계획을 보고하였으며, 향후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(MOU : Memorandum of Understanding)를 체결하고, 양 도시간 공동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임.
- 이테퀴니시는 광대한 항포구와 해안이 위치하고 있어 아프리카 지역의 국제교류 거점 확보를 통한 공동협력사업 추진의 전략적 요충지로서 우리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이 기대되며,
- 과학기술 교류를 통한 양 도시간 공동 이익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, 특히 2010년 월드컵 준결승 개최예정지로서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우리 시의 축구에 관한 행정경험과 정보공유로 양 도시간 스포츠 중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따라서 오는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 우리 시가 이테퀴니시를 방문하여 MOU를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상호 교류를 통한 우리 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지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,
- 또한 자매결연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형식적인 교류가 되는 사례가 있어 시행에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